

<b>타이틀</b>	06. 이루리, 재고를 정리하다
<b>배 경</b>	F패션 쇼핑물
<b>등장인물</b>	이루리: 20대 여 안실장: 30대 고객: 40대

**시놉시스**

모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위한 단체복과 모자를 구매하기 위해 상담을 해온다. 고객은 옷에 글씨를 넣을 수 있게 무늬는 가능한 작고, 목 칼라와 단추가 있고 허리가 짧지 않은 옷이었으면 좋겠다고, 가능한 장당 가격은 만 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다. 이루리는 해당 조건에 맞는 샘플을 제안해 고객의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아낸다.

고객이 주문한 단체복은 티셔츠는 초록색 50장, 빨간색 50장, 파란색 50장, 노란색 50장과 같은 색의 모자였다. 이루리는 재고가 그 만큼 있는 창고를 찾아보지만 없어서 결국 두 군데를 방문해 폴로셔츠들을 가지고 온다.

이루리는 상의와 모자를 색깔과 사이즈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색깔별로 티셔츠와 모자를 L-L, L-M, M-L, M-M으로 준비한다.

상사는 이루리에게 5~6만 원 한도에서 서비스를 주라고 하고 이루리는 원가가 300원, 500원인 손수건이나 양말 중 재고가 많이 남아있고 원가가 더 싼 손수건을 선물로 준다.

**대 본**

**#1 타이틀 : 이루리, 재고를 정리하다.**

**#2 쇼핑물 회의실 또는 응접실**

안실장과 고객이 상담을 하는 중이다.

안실장이 노트북을 통해 샘플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고 이루리가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안 단체복은 아무래도 편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좋죠. 4가지 색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모니터의 네 가지 옷 사진 보여주며) 그럼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좋을 것 같네요.

고객 (모니터 보며 끄덕끄덕) 색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그럼 사이즈는 다 똑같나요?

안 두 종류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지와 미디움, 두 개요. (다이어리 메모 보며) 남자분이 많으신 편이네요. 그럼 라지를 좀 더 많이 넣으시는 편이 나운데, 일단 제품을 고르세요. 제품에 따라 크게 나온 것도 있고 작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요. 이루리씨, 단체복 티셔츠 샘플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루리 네. (일어나는데)

고객 아, (루리를 향해) 단체복이라고 그, 맨날 똑같이 보이는 라운드티 이런 건 좀 아닌 거 같더라고요. 목칼라랑 단추 있는 단정한 스타일이면 좋겠어요. 무늬나 글씨가 크게 들어간 것도 싫지만 너무 맛있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허리도 좀 긴 게 좋고요. 중요한 건 단가가요, 만 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렴한 수록 더 좋고요.

*얘기 듣고 있는 멍한 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네? 기억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데 되물어봐도 되겠지?

루리가 메모지를 꺼내 적으며

루리 (적으며) 아 그러니까, 목칼라랑 단추...

안 무늬, 글씨 큰 거 안되고, 맛있게는 않은 스타일, 허리 길게 내려오고 단가 만 원 이내. (열심히 적는 루리) 우리 샘플 이미지 정리해 놓은 파일에서 먼저 조건에 맞는 걸 찾은 후에 그 샘플을 가지고 오시면 되요.

루리 아, 네.

안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색 4종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루리 네.

### #3 사무실 책상

모니터에 상의 샘플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를 옆으로 옆으로 클릭해 넘기며 고르고 있는 루리

루리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모니터 보며) 이건 무늬가 커서 안되고, 이건 만 원이 넘고, 이건... 초록색이 없네... 안되겠다. 기준을 순서대로 정해야겠어.

루리가 메모를 보며 기준을 다시 정리해 메모한다.

루리 (해당하지 않는 옷 스타일 옆으로 넘기다가) 일단 색 4종-초, 빨, 노, 파가 없는 것 제외, 목칼라와 단추가 없는 것 제외, 무늬와 글씨가 큰 것 제외, 밋밋하지 않은 스타일?...이건 나중에 판단하자. 허리가 짧은 스타일 제외, 단가 만 원 넘는 것 제외... 이거대! (상품 번호 적어 놓고 다시 계속 화면 넘긴다.) 이것도 해당...

### #4. 회의실 또는 응접실

잠시 후, 몇 개의 티셔츠 디자인들을 사진 또는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는 이루리

루리 이렇게 까지가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들입니다. 4종의 색이 다 있고, 큰 무늬도 없고, 허리도 짧지 않고요, 단가도 만 원을 넘지 않고요.

안 흠, 이 중에서 디자인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고객 사진으로 봐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몇 가지 추천해 주시겠어요?

안 음... 제 생각에는요, 체육대회 같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입으실 수 있는 실용적인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루리 향해) 루리씨 제가 체크한 상품 좀 찾아가지고 와주실래요? (안실장이 뽑는 상품 번호 적는 이루리) 이거랑 이거...

잠시 후, 티셔츠 5종을 진열해 놓고 있는 이루리

고객 (가우똥거리며) 이렇게 보니...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안 저도 다 괜찮은 것 같네요. (루리 보며) 루리씨가 보기엔 어떤 게 가장 나아 보여요?

*갑자기 불려서 놀란 루리 얼굴에서 멈추고, 속생각*

루리 어? 나도 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찌지? 아, 내 의견 말고 고객 원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한 걸 순서대로 찾아보는 게 맞겠다.

루리 (옷 세 벌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 제가 보기에는 이 상품이 원하시는 조건에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밋밋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질감에서 느껴지는 포인트가 은은하게 느껴지잖아요?

안 그죠? 밋밋한 건 싫으시다고 했으니까 이런 세련된 포인트 좋죠.

고객 (웃으며 가우똥)

루리 (다른 옷 보여주며) 그 다음으로는 이 상품이 찾으시는 조건에 맞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품에 비해 허리가 약간 짧은 거 같아서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고객 그러네요. 약간 짧군요.

루리 (또 다른 옷 보여주며)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목에 포인트를 줘서 단순하지만 밝은 디자인이어서요. 그런데 자칫 칼라와 단추가 너무 강조되서 큰 무늬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단가가 이 중에서 가장 비싸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객 아~~ 그러니까 이게 일등, 이게 이등, 이게 삼등이라는 거군요. 듣다 보니 저도 같은 의견인 것 같네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저도 첫번째 상품을 고를 거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선호도가 높지요. 활용도도 좋고요.

고객 좋습니다. 그럼 저도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신 이걸로 하죠.

안 선택 잘 하셨습니다. (상품 살펴 보면서) 이 상품은 큼직하게 나와서 사이즈는 두 종류예요. 미디움과 라지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라지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4종류니까 각 색깔별로 50개씩 하시면 어떨까요?

고객 네 각 팀이 45명~50명이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주문서 작성하며, 설명에 맞추어 그림이나 글씨로 화면에 설명) 그럼 한 세트는 티셔츠와 모자로 구성되고요, 색깔별로 각 50세트, 사이즈는 라지 30세트, 미디움 20세트로 맞추겠습니다. 모자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뒤에 끈으로 조절이 가능해서요. 괜찮으신가요?

고객 (생각하며)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안 루리씨, 이 상품이 색깔별로 200개가 우리 창고에 있나 확인해 줄래요? 모자도요. 안되면 다른 창고에서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

루리 네

루리가 나가고 뒤로 고객과 계속 앉아 가격 상담 시작하는 안과장 모습 보인다.

#### #5 사무실 책상

창고별 재고현황 보고 있는 이루리

루리 아, 빨간색 30장과 노란색 20장이 부족하네. 빨간색 30장과 노란색 20장이 있는 창고는... (손으로 모니터 짚어가며 꼼꼼히 보다가) 제 2창고다.

안 (종종종 다가와서 물어보는) 우리 재고 부족하죠?

루리 네. 제 2창고에 가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알았어요. 그건 제가 확보해 놓을게요. 이루리씨는 창고에 가서 사이즈별로 세트를 좀 맞춰와 주세요.

루리 네.

#### #6 창고

해당 티셔츠가 색깔과 사이즈별로 박스에 들어간 채 여기저기 섞여 쌓여져 있는 박스들이 보인다.

루리 (멍하니) 여기서 어떻게 찾아... 박스 정리부터 해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겠네. 일단 같은 색끼리 모아 놓으면 사이즈별로 찾는 건 쉽겠지?

잠시 후, 색깔별로 모아져 있는 박스들

그 앞에 네 가지 색의 모자와 티셔츠가 사이즈별로 두 종씩 놓여 있다.

루리 일단, 색깔과 사이즈별로는 나뉘었는데... 여기서 사이즈별로 세트를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 사이즈별로 가지고 가서 고객님 앞에서 맞추면서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다.

박스예다가 상품을 넣는 이루리

루리 빠지는 세트가 없이 구성하려면 초록색 모자 둘에 티셔츠는 라지 하나, 미디움 하나, 빨간색도 모자 둘, 티셔츠 사이즈별로 둘... 노란색도 모자 둘, 티셔츠 사이즈별로 둘... 파란색도 모자 둘, 티셔츠 둘...

### #7 회의실 또는 응접실

루리가 가지고 온 박스 안에서 한 세트 맞춰 보고 있다.

고객   파란색을 보여주시겠어요? 라지랑 미디움을 함께 보여주세요. (맞춰서 보여주는 루리) 좋습니다. 이제 색깔 별로 나란히 놔주세요. 라지 미디움 섞어서요. (맞춰서 보여주는 루리) 흠, 색도 예쁘고 괜찮네요. 좋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리   네. (박스 가지고 나가는데 뒤 따라오는 안실장)

안      (조용히 지시하며) 서비스로 뭐를 넣으면 좋은지 좀 찾아봐줘요. 세트랑 어울릴 만한 수건이나 양말 정도 200개면 5~6만 원 정도 내에서 될 거예요.

루리   아, 네.

루리가 나오면서 보면, 서비스를 준다는 말에 기뻐하며 환히 웃는 고객 모습이 보인다.

### #8 사무실 책상

창고별 입고현황표 보고 있는 이루리

안실장이 어느새 뒤로 와서 같이 모니터를 본다.

안      왜요? 무슨 문제 있어? 고객님 이제 가셔야 하는데... 괜찮은 서비스 물품이 없어요?

루리   아뇨, 양말은 단가가 500원, 손수건은 400원이라서 200개가 나가면 양말은 100,000원, 손수건은 80,000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을 포인트가 될만한 색으로 넣어드리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손수건 재고가 저희가 부족해요.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데, 그렇게 추가 비용이 드는 것 보다는 재고가 많이 남은 양말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음.. 그렇네요. 저 단체가 남자가 많더라고요. 손수건보다 양말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큰 단체라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좋겠어요. 양말로 합시다.

루리   네.

안      생각 잘 했네~ 수고했어요~